

광주시·전남도 내년 예산확보 잔걸음

광주 2012년 문화전당 1600억 등 156건 3조1438억
전남 압해~화원도로 등 SOC 5조4158억 목표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벌이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광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2013년 국비확보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156건에 3조1438억 원 규모의 국비요청사업을 발굴하고, 국비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CT연구원 구축 250억원 ▲도시철도 2호선 192억원 ▲미래형 치과산업벨트 163억원 ▲3D융합기술 189억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1600억원 ▲호남고속도로 확장 50억원 등이다.

시는 연초부터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청 간부들이 수시로 중앙부

처를 방문해 예산 배정을 호소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난 4·11 총선 당선자들과의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확보에 전력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최종보고회를 갖고 30~31일 사이 국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남도=전남도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5조원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도는 24일까지 이틀간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 집중 방문해 내년도 주요 SOC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활동을 벌였다.

이번 국비 확보 활동은 순천~완주 고속도로,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

로, 영암~순천 남해고속도로, 여수 국가산단진입도로, 나주역~빛가람도로 등 대형 프로젝트가 이미 완공됐거나 올해 안으로 모두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국고 예산 지원이 대폭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뤄졌다. 중앙부처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부터 관련 기관을 방문해 예산 확보전에 나선 것이다.

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액은 모두 5조4158억원이다. 사업별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1000억원, 압해~화원 연결도로 100억원 등 연륙연도로 건설사업 5150억원과 나주~동강 국도 23호선 등 44개 국도 건설사업에 7030억원,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7개 철도사업

3조6600억원, 산단 진입도로 등 3개 분야 23개 사업 4378억원 등이다.

이 중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돼 기본설계가 완료된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해 실시설계와 동시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연결하는 압해~화원 연결도로와 여수~고흥간 연륙연도로, 압해~압태 새천년대교, 영광~해제 영광대교 건설사업비를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우선적으로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전남도 윤진보 건설방재국장은 “앞으로도 각 중앙 부처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등 내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단계별로 국고 확보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명예경찰 기마대 창설

전남지방경찰청이 24일 명예경찰 기마대를 창설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과 제주에 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마경찰대가 있지만 일반인으로 구성된 기마대는 전남청이 처음이다. 승마 애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기마대는 여수세계박람회, F1대회, 지역 주요 축제 등에 참가해 의전 및 질서유지에 나선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광주시·유네스코 ‘5·18 기록상’ 제정 추진

러셀 세계기록유산 국제지문위원장 제안

광주시는 24일 유네스코 본부와 (가칭) 유네스코 5·18 기록상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5·18 기록상 제정 추진은 로슬린 러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지문위원장이 광주시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러셀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세계 곳곳의 민주화운동 및 인권증진 활동의 기록물 수집과 보존을 위해 인류의 기록유산으로 공

유하자”는 뜻에서 기록상 제정을 제안했다.

러셀 위원장의 주요 제안내용은 ‘민주화 및 인권운동 관련 기록물 수집 및 보존분야’와 ‘민주화와 인권운동 탄압 상황을 보도 또는 문화예술 행위로 인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침해 분야’ 등 2개 분야를 매년 격년제로 시상하자는 것이다.

또한, 유네스코 본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공모 및 시상을 추진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지문위

광주시는 앞으로 러셀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유네스코 본부와 협의를 통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을 기증했던 당시 사진기자·대학생·주부·공무원 등 12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러셀 위원장과 등재심사 소위 위원인 루타야 야마온 박사가 ‘5·18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의와 등재 도시의 교류협력방안’과 ‘미등재 인권기록물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등재도시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년 ‘韓·대만 관광교류회의’ 광주서 열린다

市 방문단, 대만~무안공항 전세기 관광상품 개발 협의

광주시가 내년 8월 개최 예정인 ‘2013 한·대만 관광교류회의’를 유치하면서 대만 관광시장 개척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 대만 방문단’은 지난 23일부터 까오슝에서 개최된 한·대만 관광교류회의에 참가해 ‘2013 한·대만 관광교류회의’를 광주에서 개최기로

합의했다.

방문단은 이번 회의에서 대만 관광국, 관광협회, 한국상품 판매여행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류연계 케아팝(K-POP) 아카데미, 호남권 사찰순례, 청소년교류, 노인교류 상품을 소개했다.

광주시 방문단은 또 대만 인바운드

전담여행사인 화인관광, 경안여행사와 함께 대만~무안공항 전세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전세기는 오는 8월경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대만 관광객 유치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7개 기업과

797억 규모 투자유치

240명 고용창출 기대

광주시가 광산업과 자동차, 바이오산업 등 7개 기업으로부터 797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광주시는 24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 스톨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업·전자·자동차·신소재·바이오산업분야 등 7개사와 797억원 투자, 240여 명의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LED검수장비 제조업체인 강우테크(주)는 100억원을 광주에 투자할 계획이며, 자동차 부품관련 기업인 (주)대웅에스엔티, 알이씨(주) 등 3개 기업은 60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주)셀인바이오, (주)신미래그린텍, 예프엠산업 등 3개 기업도 8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실무 투자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권익위, 공무원 고액강연 금지 권고

소 굵겨죽인 농장주 형사처벌될 듯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의 외부 고액 강연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직급별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으로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 등으로 제시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강연이나 강연이 아닌 각종 심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 범위에서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상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연말에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각 기관이 분기별로 직원의 외부 강연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직무와 유착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잦은 출장을 하는 직원은 문책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장동물 학대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 소 집단 아사 행위의 책임을 물어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라북도와 순창군이 A씨를 고발하고 농가에 남아있는 소를 신속히 격리·사육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구제역 사태 이후 소 값이 폭락하는데도 사료 값은 계속 오르자 항의 표시로 정부 사료의 급여와 소 매각을 거부한 채 소 33마리를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동물을 보호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치료기관으로 일시적으로 옮겨 격리할 수 있게 돼 있다.

/연합뉴스

탄소은행 가입 광주 14만가구 녹색생활 Good

작년 온실가스 2만5천t 감축
소나무 918만그루 식재 효과

광주시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탄소은행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각 세대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 실적을 집계한 결과 탄소은행제 가입 세대인 24만 350만 세대 중 60.6%인 14만5831세대가 에너지를 절감했다.

에너지원 별로로는 전기 1만6496t, 가스 3785t, 수도 5269t 등 온실가스 감축량이 총 2만5550t으로 소나무 918만 그루를 식재한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CO₂) 감축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탄소은행에 참여한 세대가 참여하지 않은 세대보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플러그 뽑기, 멀티탭 사용, 수돗물 아껴쓰기 등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저탄소 녹색생활을 생활화한 결과로 파악된다.

광주시에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탄소은행제’는 일반가정에서 전기·가스·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많은 경우 연간 7만 원까지 현금화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탄소은행제’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가까운 구청, 동사무소, 광주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고 RIS-2012-001]

전남대학교 신 에너지 RIS 사업단 2012년 기업지원사업과제 공모

전남대학교 신 에너지 RIS 사업단은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신 에너지 소재부품 기업지원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내 신에너지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 및 판매와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지원분야

가. 태양 에너지 분야 (셀, 전지 모듈, 컨버터, 추적장치 등)
나. 수소 에너지 분야
다. 기타 신 에너지 관련 분야
라. 소재부품 분야에서 기업의 생산력 및 매출에 도움이 되는 분야
※ 관련기업 컨소시엄 구성 시 평가 가산점 부여

② 지원사업

공동브랜드 제품개발지원, 예로기술지원, 시제품제작지원, 소재/공정 효율화지원, 분석지원,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국내외 전시회참가지원 (작품제작), 홍보활동지원, 기술경영멘토링, 기술성·사업성평가지원 등

③ 지원기간

2012년 7월 ~ 2012년 10월

④ 사업비

지원사업별로 평가 후 차등 지원 (사업종료 후 수익금 납부)

⑤ 신청기간

가. 1차 : 공고일 ~ 2012년 6월 11일(월) 18 : 00 까지
나. 2차 : 기업지원 사업비 소진 시까지

⑥ 신청자격

광주 지역내 신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⑦ 제출서류

지원신청서(디스크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참여기업 확인서, 견적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⑧ 제출방법 및 문의처

가. 제출방법 : 사업단 홈페이지(http://jnuris.chonnam.ac.kr) 공지사항의 지원신청서 서식에 의해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mail(jnuris@chonnam.ac.kr) 또는 방문 신청

나. 접 수 처 :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산학협력공과관 306호 신에너지RIS사업단

다. 문 의 처 : 사업단 기업지원실 (☎ 062-530-1992, 담당자 민병준)

⑨ 기타사항

지원업체의 선정은 내부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 남 영 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 (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의 1필지 (전남지방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 (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 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 과
1 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 차	2012. 06. 11	6,662,793,000원	
3 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 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



전남대학교 신 에너지 RIS 사업단장